신진작가들 붓끝으로 붓다를 담다

아소카미술연구회 첫 전시회
7월 31일까지 무우수갤러리
'K-ART' 전시 시리즈 일환
작가, 수복자 등 회원 참여해
새로운 감각 불교 작품 선보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소카 대왕은 인도 마우리아 왕조 3대 군주로 불교를 부흥시킨 전륜성왕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이 불법(佛法)을 홍포한 아소카 대왕의 사상과 정신을 흠모한 젊은 불교미술인과 학자들이 결성한 '아소카미술연구회(회장 심주완)'가 첫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소미술연구회는 7월 31일까지 서울 종로 무우수갤러리 3~4층에서 첫 성과전 '붓끝에 붓다'를 개최한다.

'붓끝에 붓다' 전시는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작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 김도아의 작품 '육도윤회도'는 아잔타 석굴이나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도상을 우리 전통 도상에 도입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작가 김성태와 현승조의 작품 '깨달음(覺)'은 진리를 찾는 추상적인 내용을 단지 첫 글자의 위치를 통해 선문답처럼 드러내고 있다.


김도아作 / 육도윤회도 / 마본채색 / 305cm x 192cm

작가 박근덕의 '봄바람, 아련하니'는 생명의 고귀함과 대지에서 기운을 흡수한 식물의 에너지를 단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작가 오지수의 '보현보살도'는 고려불화의 정교한 모사이지만, 마치 우리 곁의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듯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전통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전통 예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 미술은 예술혼이자 수행과 구도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출품작들을 보면 붓끝에 담긴 그 고도의 집중을 읽을 수 있으며 작가들이 드러내고자 한 진정성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림 속에 드러난 붓다는 작가가 정신을 붓끝에 집중하는 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손을 타고, 붓을 통해 드러난 작가들 내면의 붓다일 것이다.

그렇기에 '붓끝에 붓다' 전은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붓끝으로 그려낸 예술혼일 수도 있고, 붓끝으로 그려낸 붓다, 즉 부처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수완 우석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붓끝에 붓다' 전의 작품에서 수행의 면모로서의 창작 의도를 다양하게 읽어볼 수 있다. 아마도 '우리 곁의 깨달음'이 이들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일 것"이라며 "작가들은 그들의 붓끝에 선 자신을, 그리고 붓다를 보았을 것"라고 평가했다.

심주완 아소카미술연구회 회장은 "아소카미술연구회는 실제로 작품을 창작하는 전통미술 작가, 연구하는 이론가, 보존하는 수복자, 활용하는 경영자와 후원자가 모여서 한국 전통미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연구 모임"이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첫 전시회를 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꽃 관련 전시 2題

'연꽃 사진 장인' 동욱 대종사 작품 '한자리'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
'꽃을 드니 미소 짓다' 개최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연꽃 사진 전문가인 선암 동욱 대종사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는 "7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특별전 '꽃을 드니 미소 짓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40여 년의 세월동안 초지일관 오직 연꽃만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동욱 스님의 연꽃달력사진 252장과 병풍 1점을 선보인다. 스님은 수행과 보시의 원력으로 연꽃 사진을 찍었기에 동욱 스님의 연꽃 사진 속에는 승가의 올곧은 수행정신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빛과 향기로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동욱 스님은 "출가 사찰인 해인사에서 전시를 열어 기쁘다. 수행의 방편으로 담아 본 미흡한 작품이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의 연꽃을 함께 피워 세계일화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시회를 기획한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는 연꽃의 수식어처럼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해인사를 찾는 관람객들이 연꽃 닮은 수행길을 일구어 너와 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연꽃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전시회에 출품되는 동욱 스님의 연꽃 사진. 2006년에 촬영됐다.

대학생 국악페스티벌 '국악관현악축제'

7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동국대 등 11개 대학 80명 참여
박애리 교수, 佛歌 '보렴' 선보여



국악 전공 대학생 80명이 신인 연주자로 데뷔하는 국악축제가 열린다.

국립국악원과 한국음악협회는 오는 7월 2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23 국악관현악축제'를 개최한다.

국악관현악축제는 국악인들의 화합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음악 축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부터는 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를 조직해 신진 국악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관현악축제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이 총예술감독을 맡아 공연을 진두지휘 하며,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 학생들도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에 참여한다. 5기 '한음아카데미오케스트라'는 동국대를 비롯한 11개 대학 재학생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불교 관련 작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박애리 동국대 한국음악과 대우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공연하는 불가(佛歌) '보렴'은 본래 남도잡가 중 한 곡으로 박범훈 총감독에 의해 관현악에 맞춘 성악 협연곡으로 재탄생했다.

한편, '2023 국악관현악축제'는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한국음악협회 사무국(02-2655-3061, 3063)으로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박경빈 作/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감지 금니/ 48.5×28.5cm

전통사경 맥 잇는 장인 작품들 만난다

한국사경연구회 제18회 전시회
7월 19~25일 갤러리 라메르서

전통사경은 불교 경전을 전파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수행과 공덕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런 가치를 인정받아 사경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전통사경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사경연구회(회장 박경빈)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갤러리 라메르 1층 1관에서 '불교 문화재의 보고(寶庫), 전통사경'이라는 주제로 18번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김경호 사경장(한국사경연구회 명예회장)과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을 비롯한 4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전통사경(권자본 · 절첩본), 현대사경, 서각 등 총 4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신성민 기자

'처염상정' 상징 연꽃, 선서화로 만난다

태범 스님, 7월 21일부터 화엄사 성보박물관서 초대전

연꽃 선서화(禪書畵)를 통해 대중포교 나선 태범 스님의 전시회가 열린다.

경주 흥덕사에 주석 중인 태범 스님은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구례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연연(蓮緣), 화엄에 묻다'를 주제로 초대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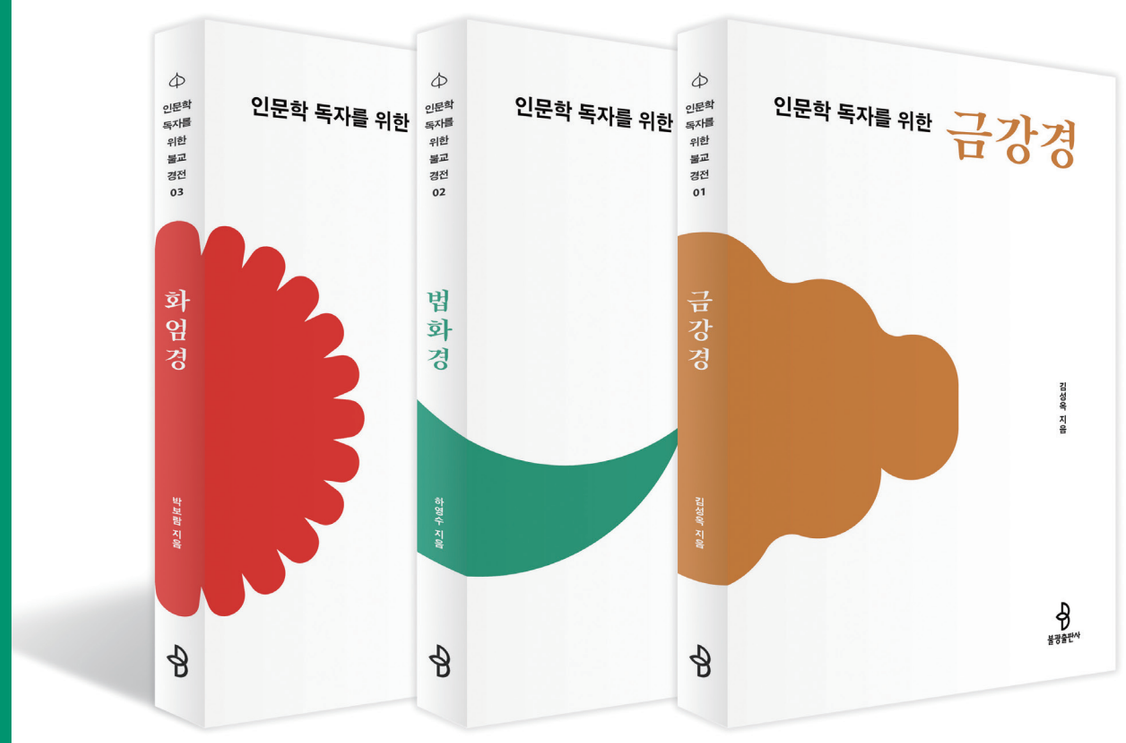
태범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 선서화예술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꽃 선서화를 그리기 시작한 스님은 매일 참선과 기도 후 토해 내듯 그림을 그려낸다.

태범 스님은 "무념무상,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면서 "이번 연꽃 그림들은 화선지와 붓, 먹 등이 화합해 이뤄낸 선화(禪畵)"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태범 스님이 3년 동안 수행을 통해 벼려낸 연꽃 선서화 60점을 선보인다. 선적 기풍을 담았기에 화제(畵題)도 작품 제목도 없다.


태범 스님作/ 무제 40
수묵담채/ 68cm×44.5cm

태범 스님은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꽃이자 불교의 성스러움을 담은 꽃"이라며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닫고 모는 번뇌에서 벗어나셨다. 저도 연꽃 선서화를 통해 불법(佛法)을 전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01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금강경 (김성옥 지음, 16,000원)
우리 안의 굳은 편견과 어리석음을 부수는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

02 인문학 독자를 위한 법화경 (하영수 지음, 16,000원)
우리의 이야기가 될 붓다의 이야기

03 인문학 독자를 위한 화엄경 (박보람 지음, 16,000원)
모든 존재가 자신의 참모습대로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

불교 입문자와 인문학 독자를 위해
주요 경전의 핵심 내용만 쏙쏙!

인문학 독자를 위한
불교 경전 시리즈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판형
부담 없이 읽어 보는 나의 첫 불교 경전 입문서

- 이 경전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 이 경전은 왜 만들어졌을까?
-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이 경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